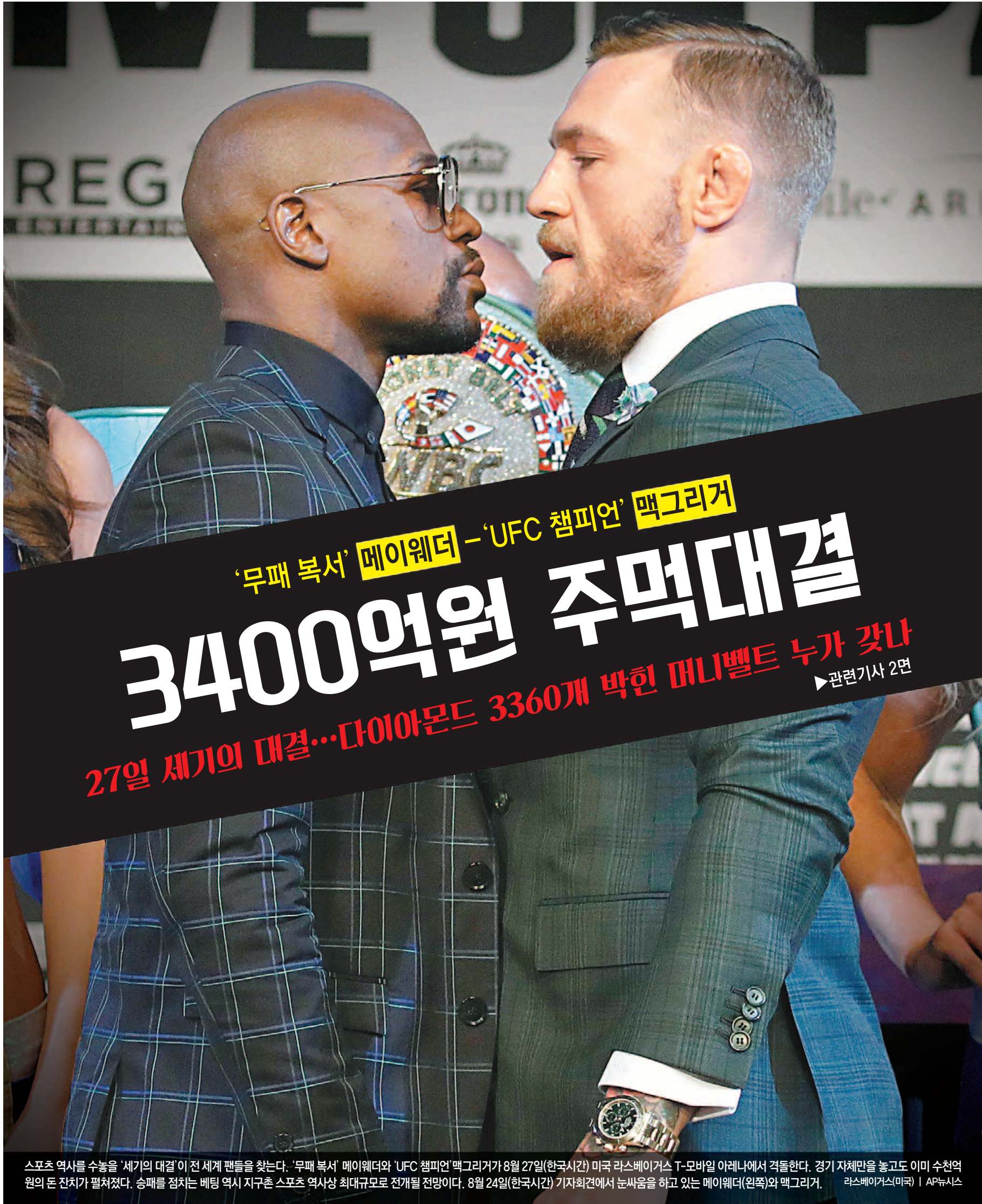


‘무패 복서’ 메이웨더 - ‘UFC 챔피언’ 맥그리거

3400억원 주먹대결

27일 세기의 대결...다이아몬드 3360개 박힌 매니벨트 누가 갖나

▶관련기사 2면



스포츠 역사를 수놓을 ‘세기의 대결’이 전 세계 팬들을 찾는다. ‘무패 복서’ 메이웨더와 ‘UFC 챔피언’ 맥그리거가 8월 27일(한국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T-모바일 아레나에서 격돌한다. 경기 자체만을 놓고도 이미 수천억 원의 돈 차이가 펼쳐졌다. 승패를 정하는 배팅 역시 지구촌 스포츠 역사상 최대규모로 전개될 전망이다. 8월 24일(한국시간) 기자회견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메이웨더(왼쪽)와 맥그리거. 라스베이거스(미국) AP뉴시스

보 일 아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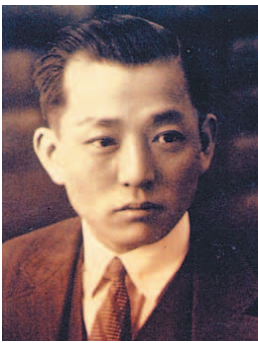


榮譽의 우리孫君 (上) 孫君의 月桂冠
라손優勝者〃우리勇士孫基順君〃(下) 孫君의 月桂冠
贈送者는 孫選手(×印) (1936年8月9日)

1936년 베를린올림픽 남자 마라톤 정상에 오른 손기정의 사진은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에 의해 일장기가 지워진 채 보도됐다. 이길용 기자를 기리기 위한 홍상 제막식이 서울 중구 손기정 기념관에서 25일 열린다. 스포츠동아DB

‘월계관’ 손기정-이길용 기자 81년 만의 ‘아름다운 만남’

동아일보 이길용 기자, ‘손기정 일장기 말소’ 주역 독립정신 기려 25일 손기정기념관에서 홍상 제막식



이길용 기자

1936년 8월9일 밤 11시2분.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광화문 동아일보사(현 일민미술관)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몰려있었다. 동아일보사의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 네거리에 울려 퍼지는 베를린올림픽 남자마라톤 NHK의 라디오(JODK) 중계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이다.

중계방송은 스피커를 통해 광화문 네거리에도 크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중계방송은 8월10일 자정을 기해 끊겼다. 손기정이 17km 지점을 막 지날 때였는데, 손기정은 선두 자비라(아르헨티나)를 맹추격 중이었다. 사람들은 분통을 터트리며 발을 굴렀다. NHK는 밤 11시와 오후 6시30분 각각 1시간씩 하루 두 번 밖에 올림픽 실황을 중계하지 않았던 것이다.

동아일보사 앞에서 진을 치고 라디오 중계방송을 듣고 있던 시민들은 하나둘 집으로 가거나 인근 청진동 대꽃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동아일보사에 초청된 인사들도 입맛을 다셨지만 별수 없었다. 그들은 4년 전 LA올림픽에 출전했던 김은배의 이야기를 들으며 속속 편집국에서 넘어오는 베를린 소식을 접하며 마른침을 삼켰다.

●이길용 기자는 왜 일장기를 지웠는가

그 시각 동아일보사 편집국은 기자들이 피워낸 담배연기로 자욱했다. 운동부(체육부) 기자들은 전화통을 붙잡고 도쿄와 베를린에 선을 대기위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베를린을 람픽 취재 반장격인 이길용 체육주임기자(1899~?)가 가장 바빴다. 이 기자는 조선체육계의 마당발이었다. 키는 작달막하고 체구는 호리호리했지만 눈은 광채로 반짝였다. 그는 이미 손기정이 우승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선 내일 아침 당장 호외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석간이었다.

이길용 기자는 사회부 편집 담당 장용서 기자를 불렀다. “윤치호(1865~1945) 조선체육회장 때에 간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틀림없이 손기정이 우승할 테니 윤 회장 소감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윤치호는 1928년 이래 8년 동안 조선체육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 그는 병으로 자리에 누워있어서 동아일보사로부터 초청을 받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다.

손기정 우승 16일째인 1936년 8월 25일, 역사의 순간을 담은 손기정 우승 시상식 사진이 긴 시간을 뚫고 도착했다. 시상대에 선 손기정의 유니폼엔 일장기가 선명하게 박혀있었다. 이길용 기자는 청전 이상범 화백, 사진반원, 편집부원 등 여러 직원과 힘을 모아 이날 발간될 동아일보에서 시상대에 오른 손기정 선수 유니폼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지웠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부터 동아일보 기자 10여 명이 차례로 종로경찰서에 붙잡혀 갔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NAVER DUM 검색창에 바다양퐁이동태탕을 검색해 보세요.

전국 340 호점 성업중

KBS CBS라디오 광고 중 ON AIR

바다양퐁이 동태탕 업종변경 380만원

점주시공 - 간판류(간판파일제공) / 본사지원 - 그릇, 전단홍보, POS, 교육 일체 다포함

생태같은 동태탕! 맛과 신선함이 아름답니다.

업종변경 지원목록

1. 점주시공 - [간판류] 전면간판전달기 / 돌출간판전달기 / 외부유리창전원 / 내부메뉴판 / 현수막 / POP

2. 본사지원 - [주방그릇] 양퐁이 1, 2, 3, 4인용 / 전골냄비(중.대) / 찜철판(중.대) / 동태찌기 / 만두찌기 / 동태찜팬 / 저울 / 사쿠 / 계량스푼 / 동태칼 / 앞치마 [전단홍보] 전단지(8,000장) / 발지 / 평향 [포스시스템] 컴퓨터 1대 (월7000원 무상임대) [조리교육] 조리사파견 및 출장조리교육

성공창업포인트

1. 야채값 부담이 진짜로 없다.

2. 마진이 진짜로 높다.(75%이상)

3. 조리가 진짜로 간편하다.

4. 점심, 저녁 매출이 진짜로 높다.

5. 맛은 목숨걸고 진짜로 확실합니다.

전국신규 오픈매장

전원 대한민국

KBS를본인(대한민국)맛집명령

인천 검단본점

대구 칠곡점

천안 두정점

광주 송정점

대전 효동점

문의/의/전/화 1688-4938

토·일 상담가능

www.badajini.co.kr